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여로보암 이야기 성경: 열왕기상 12장 25-33절

Tag:

25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26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 로다

27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 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 로다 하고

28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 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 하나는 벧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 함이더라

31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 고

32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 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벧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 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벧엘에서 세웠더라

33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벧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왕상12:25-33)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 그의 어머니는 과부요 이 름은 스루아.

-밀로(요새의 이름)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보수하는 자로 일함.

- 젊어서는 열심 있는 자로서 솔로몬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

- 솔로몬이 그를 에브라임 족속 노역 감독관을 삼음.

-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예언을 받음. 아히야가 새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줌.

- 솔로몬이 여러 우상을 섬기기 때문임.

- 너는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 다만,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러면 너의 집을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하리라.

- 그러나 이는 다윗의 집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즉, 시간이 지난 후 나라를 하나로 합하게 하리라는 뜻.

- 그 후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망명생활을 하게 됨.

- 그는 애굽에서 나라를 위해 많이 연구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임.

-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후일에 그가 하는 짓을 보면 그는 금송아지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 것임. 바로가 권세를 부리는 짓거리만 배움. 갑질하는 짓거리만 배우고, 백성들을 어떻게 부강하게 하느냐는 배우지 못함. 자기가 서민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족 같이 되려고 함.

- 왕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님. 다윗을 보라 그가 쉽게 왕족이 되었는가?

- 그는 과부의 아들로 미천한 자였으나 몸이 튼튼하고 그 열심을 인정받았으나, 정권을 쥐자 정권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멸망함.

- 여로보암 정권의 목적은 다윗 왕조가 신앙심을 잃어 버렸을 때 너는 더 강력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윗 왕조로 시기심을 일으키게 하라. 힘을 실어주심, 열지파나 주심. 이들은 모두 다윗 왕가에게 야당임. 그러므로 얼마든지 경쟁할 만함.

-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악한곳에 사용함.

- 그 원인을 문화적으로 예루살렘이 더 우월하였기 때문이라고 착각

함. 왜 그는 그 전통적인 문화에서 이방인으로 스스로 생각했을까?

-만약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당을 세우고, 올바른 문화행사를 계획 했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왕가가 되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주력부대가 아닌, 그 곁에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자임. 그러나 그는 문화적 질투심에 빠져 악한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던짐. 그래서 완전하게 멸망함. (한국도 마찬가지. 원래 한국과 일본은 영국으로부터 러시아의 진출을 막는 방패 역할을 위해 군사력을 허락받은 나라였음. 일본 보다는 한국이 더 유리하니 한국에게 그 기회를 주려고 함. 지금도 그러함. 그러나 한국이 이를 외면해서 일제치하에 들어감. 지금도 그럴 것인가? 나라마다 자신의 역할이 있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결국 망하게 됨. 내가 왜 사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돌아와 북쪽 10지파의 왕이 됨.

-처음에는 성도 짓고 나름대로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만 한가지가 자신을 괴롭힘.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만약 그가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에 참여 하였더라면 그의 위는 더욱 굳건했을 것이며 그 나라는 전쟁도 없었을 것이며, 그의 가문은 다윗 가문처럼 소문난 가문이 되었을 것이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서로 친함. 솔로몬이었다면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시기질투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문화를 시기하였다.

-그래서 해서는 아니 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귀가 내 생각을 공격할 때 조심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

에 서야 한다. 내 자존심이나 내 지위나, 내 체면이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매사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저들이 르호보암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며, 결국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계획을 세운다.

-자신이 종교적인 주권자가 될 계획을 세운다.

-이는 월권이다. 이는 욕심이다. 이는 저주이고, 이는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자기 처지와 정권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요 교만한 것이다.

-그는 벨엘과 단에 금 송아지를 세우고, 염소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어용 제사장을 세웠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버렸다. 북쪽은 종교적으로 황폐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난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가 된다. 그곳에는 인제가 사라지고 활력을 잃는 땅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 시골처럼.

-하나님은 유다의 무명 선지자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벨엘 제단에 보내셨다. 마침 여로보암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무명 선지자는 벨엘 제단을 향하여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왕상 13:2)

그리고 징조를 선포 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3)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저놈을 잡으라. 할 때 그의 손이 말랐다.

그리고 제단은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다.

여로보암은 놀라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손을 원상태로 회복하게 해 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를 회유하여 자기의 신흥 종교사업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였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저주를 풀지 않고 쌓았다.

이 예언은 290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로보암의 큰 아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과 이름이 같다.)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가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는 심각한 지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듣고 그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하기로 하셨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면 여로보암은 살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한다.

-그 아들은 곧 죽을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내를 변장하여 실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떡12, 과자, 꿀1병) 그는 이미 늙어 눈이 어두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히야에게 말씀 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너는 왜 다른 사람인척 하느냐, 네 아들이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 경고 하신 셈이다.

-너의 집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안에서 죽은즉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오직 네 아들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이 만든 기득권을 놓지 못하였다.

- 그후 여로보암은 전쟁을 준비한다.
- 남쪽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아비야)이 다스리고 있었다.(3년간 통치. 여로보암 18년에 즉위) (어머니는 마아가-아비살롬의 딸 <?기브아 우리엘의 딸 미가야?>)
- 그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함. 하나님이 아비야를 심판하심.
- 그러나 여로보암과의 전투에서 승리함. 여로보암이 80만으로 40만 유다 군대를 에워쌌으나, 아비야가 스마라임산에서 명연설을 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대하 13:12)

- 그들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50만을 죽이고 승리함.
- 여로보암이 이 전쟁에서 크게 짐으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 물론 아비얌이 먼저 죽음.
- 아비야가 벨엘과 여사나와 에브론을 빼앗음.
-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 받으나 겨우 2년을 버티다 전쟁터에서 부하장수 바아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아사에게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숙청을 당하게 된다.

- 숫자가 비록 적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승리한다.
- 아비야가 비록 죄가 많으나 하나님은 그를 여로보암을 심판하실 도구로 사용하심.
- 절체 절명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됨.

- 현재 북한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다 멸망함.
- 오직 하나님을 끌어 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 그들이 여로보암이 되지 말고 세계사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눈

을 뜨는 것 외에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르호보암(17년. 아내 마아가-압살롬<아비살롬>의 딸) (모친은 나아마 암몬여인)

-세겜에서 늙은 신하의 말을 버리고 젊은 신하의 말을 따르다 왕국이 분열됨.

-집권 초기에는 전쟁준비도 철저히 하고 경제도 든든히 하여 나라를 굳세게 함.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인구가 늘었으며 나라가 부요해 짐.

-그러나 그 후에 우상숭배를 방치하고 집권에 소홀하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시삭을 보내 성전에서 보물을 약탈하게 함.

아사(41년 통치. -여로보암 20년에 즉위. 마아가-아비살롬의 딸 아마도 마아가가 그때 태후의 위에 앉아 섭정을 했기에 아사가 그녀를 폐위 시키고 그녀가 세운 아세라 상을 훼파하였다.)

-남색하는 자들을 몰아냄. 우상을 없앴.

-아사는 마레사에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을 이끌고 쳐들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다.

-여로보암 (22년. 느밧의 아들. 에브라임 사람.)

-솔로몬이 그의 열심히 일함을 보고 노역의 감독자로 삼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것을 예언 받음.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생명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도망함.

-솔로몬이 죽자 이집트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의 왕이 됨.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결국에는 르호보암을 섬길 것을 두려워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 벧엘과 단에.

-자기 맘대로 아무나 돈을 받고 제사장을 세움.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에 나타나 경고함. 290년 이후 요시아 왕 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짐.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됨. 여로보암이 아내를 보냄.(떡10, 과자, 꿀1병)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죽음을 예언함.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 성에서 죽은 족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아이가 죽으리라. 이 아이만 묘실에 장사 되리라. 오직 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려 아비야와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하심.

-나답(2년 통치. -아사2년에 즉위.

-블레셋 깃브돈에서 전쟁 중 바아사에게 죽임 당함.

-바아사가 온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멸망시킴.

<찬양예배>

제목 : 오늘의 리더 성경: 디도서 1장

Tag: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7 감독은 하나님의 청자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0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과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미쁘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12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딤후1:1-16)

1-2절은 목적의식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목적은 가치관의 문제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객관적 도달지점.

3절, 5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관한 말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3)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5)

리더에 합당한 사람

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성직자에게 합당한 사람

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

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리더의 영적 전쟁

10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미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요

■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
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
하니라 (요일1:8~10)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6:51)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
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6:56~58)

■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요일5:5~6)

■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
가 떴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전 10:16-17)